

현역의원 재출마 지지도 조사... 지역구 지방선거 지면 감점

새정치 공천평가 5개 지표 어떻게 적용하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공천 개혁 내용을 담은 제8차 혁신안을 19일 발표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130명 가운데 하위 20%인 26명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항목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도 35% ▲선거기여도 10% ▲지역구 활동 10% ▲다면평가 10% 등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사자의 지역구 출마 의사와 관계없이 평가가 진행되며 의정활동과 다면평가 등 두 가지 항목이 적용된다. 보궐선거로 19대 국회에 진입한 국회의원은 선거 기여도 부문에서 비교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호남과 영남 등 지역별 정치적 환경이 크게 다를 경우, 지역 보정을 한다는 입장이나 정확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일보도 혁신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재웅 변호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평가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지지도 여론조사=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현역 국회의원의 재출마 지지도에 대해 조사한다. 새정치연합 지지층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 인 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무작위 추출이라는 점에서 역선택 비율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혁신위의 입장이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의 편차를 평가에 반영한다. 이 경우 새정치

법안발의실적 따져 의정활동 평가

지지도 조사 호남 역차별 가능성

의원들 상호 다면평가 논란 소지

연합 지지도가 높은 호남의 현역 국회의원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본회의 및 상임위 참석률, 법안발의실적 등이 의정활동 평가 자료에 포함된다.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감점을 받지 않는다. 본회의에 100% 출석하고 법안발의가 100건이 넘는다고 해도 감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준에 미달한 현역 국회의원들은 감점을 받는다. 공약 이행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선거기여도 평가=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선 현역 국회의원 당선 당시 받은 정당 지지도와 광역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도 편차를 반영한다. 정당 지지도율 근거로 비례대표 의원이 각 정당에 할당되기 때문이다. A의원이 총선에서 50%의 정당 지지도율을 기록한 뒤, 광역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도율 55%를 얻을 경우, 감점을 받지 않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는다. 반대의 경우에는 감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지방선거 결과도 평가 대상이다.

지역구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이 패배한 경우, 감점을 받는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도율은 국회의원의 영향보다는 중앙당이나 당시의 정치 상황에 의해 요동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공천도 경선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면평가 및 의정활동평가=다면평가는 능력, 인성, 헌신성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상호 평

가로 이뤄진다. 19대 총선에서는 30%가 반영됐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역활동은 지역위원회 운영과 대민 활동, 의정보고회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여기에 중앙당 조직국의 당무감사자료도 활용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당, 천정배 의원과 큰 틀서 함께해야”

박준영 前 지사...“창당 올해 넘기지 않을 것, 당명 더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모색 중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19일 신당 움직임과 관련,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큰 틀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이날 불교방송 ‘양창욱의 아침저녁’에 출연, 천 의원 측에서 신당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하겠다는 질문에 “정체성 측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큰 틀에서 새정치를 하면서 미래 지향적 생각이 같다면 같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지사는 또 “지금 시작하는 게 다르지만 전국적인 현상을 수용해서 국민께 봉사하는 정치, 민중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데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동영 전 의원과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과거에 좋아했던 정치인”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다. 정 전 의원이 연대를 제안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 지향·가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전 지사는 신당 창당이 올해를 넘길 것 같으나 이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당명도 ‘신민당’이 공감되고 있지

만 더 논의를 해야 하고, 그런 걸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탈당을 한 7월 중순쯤에는 10월 재보선이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정치연합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때문에 규모가 많이 줄었다”며 “시간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기타큐슈/벵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39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자마 3일 45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일본 8만개 신들의 고향 하치만궁의 본사가 있는 우사신궁 관광 ▶ 일본 자연유형재해지 유노하나 관광 ▶ 일본 최대의 온천수를 자랑하는 벵부 지옥온천 카마도 지옥 ▶ 전통 민예촌거리, 긴린코 호수 자유시간 ▶ 야마가세 고급 펜션(2인실) 투숙 및 온천욕

2일차 지옥폭포 관광 ▶ 태재부 천양궁 관광 ▶ 베이사이드 하카타 타워 ▶ 오오리공원 일본정원 관람 ▶ 후쿠오카 시내 캐널시티 개인 자유시간 ▶ 자연사 박물관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 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일본 3대 아케보리 불리는 시라쿠아마 아케보리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칸타이로 관광 ▶ 이초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자마 오모도리 ▶ 미야자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초쿠시마 본전 ▶ 미야자마 오송목탑, 다카부타이 ▶ 호텔(온천호텔 또는 1급호텔) 투숙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신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분루 ▶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토르 ▶ 일본 3대 아케보리 불리는 시라쿠아마 아케보리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통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경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비, 렌터카(2인실) 또는 호텔(2인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임종료, 19인 여행자보험. [특선]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왕복 수송

■ 공통포함사항 상급차차,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2억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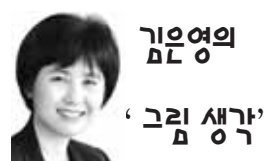
■ 에어텔(기타큐슈 비즈니스호텔 1박+항공) 3일&4일 269,000원~

■ 기타큐슈/히라오다이 올레길 3일 5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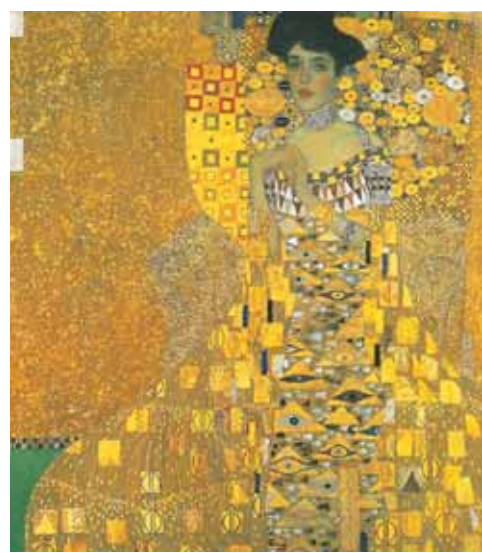
■ 오이타/오쿠분고 올레길 4일 769,000원~

■ 야마구치 조요C.C 골프 3일(36H) & 4일(54H) 4일 779,000원~

찬란해서 더 슬픈 ‘황금 귀부인’의 눈빛



(123) 우먼 인 골드



클림트 작 '아멜레 블로흐 바우어'

서양미술에서 신비감과 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의 배경을 금빛으로 가득 채웠던 것은 중세 비잔틴미술의 양식화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금빛은 찬란했지만 원근을 가능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밋밋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중세미술의 금칠을 견어냈던 조토(1267~1337)는 푸른색으로 원근과 명암을 시험하면서 현실적인 배경을 묘사하기 시작했고, 그 까닭에 르네상스 미술을 연 위대한 화가로 손꼽힌다.

어쩌면 중세 이래 황금색을 가장 잘 다루었던 화가는 작품 '키스'로 우리에게 친숙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일 것이다. 금세공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클림트의 작품들은 황금색의 광휘로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꼽히는 클림트의 초상화 '아멜레 블로흐 바우어'(1907년 작)도 눈부시게 화려한 황금빛 배경으로 인해 중세미술의 비잔틴 이론화를 상기시킨다. 클림트의 후원자였던 아멜레를 모델로 한 이 그림은 황금으로 뒤덮인 가운데 슬프고도 오묘한 눈빛이 비밀스런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한때 이 작품은 아예 '황금의 귀부인'이라는 의미의 '우먼 인 골드'라 불리

도 했다. 그림 제목이 '우먼 인 골드'로 바뀐 까닭을 알게 된 건 한 편의 영화 덕분이다.

영화 '우먼 인 골드'는 나치가 약탈한 한 유대인의 미술품 반환 소송을 소재로 한 것으로, 그 초상화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편의에 의해 붙여진 작품명이었던 것이다. 8년 소송 끝에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 불리었던 이 그림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기까지의 여정과 나치를 피해 가족과 헤어지면서 받은 상처, 잃어버린 과거와 가족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오래오래 가슴에 남는다.

현재 이 작품은 2006년 회화품 회사 에스티 로 더 창업자의 아들이 1500억원에 구입해 뉴욕 맨하탄 노이에 갤러리아에서 대중들에게 눈 공개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